전국 향우 한자리… '전남 고향사랑' 응원 열기 후끈

목포서 고향사랑 대회 성료
유공자 시상·도정협력 협약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다짐
고향사랑기부금 정착 지원

전남을 고향으로 둔 전국 각지 향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 사랑'을 한마음으로 힘껏 응원했다.

전남도는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남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100억원 달성을 축하하고,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43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전남 한마음 고향사랑 응원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박우량 신안군수,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총회장, NH농협 전남본부, 광주은행을 비롯해 22개 시·군 향우회,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함께했다.

응원대회는 유공자 시상,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자문위원 위촉, 업무협약, 선언문 낭독, 고향사랑 응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전남 한마음 고향사랑 응원대회'에서 고향사랑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유공자 시상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가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시·군 담당자, 농축협 조합장 등 48명에게 수여됐다.

이어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분야별 전문가 8명을 위촉했다.

고향사랑 활성화와 도정 현안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도 진행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남형 만원주택',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담부서 설치', '남해안 종합개발청 유치' 등이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살기 좋은 전남 건설을 위한 현안 과제 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 도의회, 22개 시·군, 향우회 등 40여 기관이 참여했다.

전남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소통·교류를 다짐하는 의미로 대구에서 온 청년 리더 서포터즈 김형주씨를 비롯해 수도권 대표 맘카페 운영자 서포터즈 자문위원 이명아씨 등은 고향사랑 응원 선언문 낭독을 통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24년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 150억원, 서포터즈 100만명 달성을 다짐했다.

목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은 '소아과 설립 등 기금사업 추진과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 달라'는 약속을 선창하고 참석자 전원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김영록 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전남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준 22개 시·군을 비롯해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제도 시행 2년 차인 내년에는 기부금 모금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도록 전략을 잘 세우고 기금사업 추진 등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을 향한 전남도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12월 말 현재 전남지역 고향사랑 기부금은 120억원을 돌파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교육프로그램 확정

광주시가 내년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1박2일 가족체험, 청년소통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광주시는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5·18민주화운동교육관 2024년 교육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새롭게 신설된 교육프로그램은 1박2일 가족 체험 행사,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청년 소통 프로그램이다.

가족체험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5·18국립민주묘지, 전일빌딩245, 5·18기록관, 5·18자유공원 등을 답사하고 5·18인문학강좌를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다. 청년 소통 프로그램은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청년세대가 토론회를 통해 세대 극복과 5·18정신 계승 발전을 모색한다.

광주시교육청, 5·18기념재단 등 타기관·단체와 협력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선보인다.

5·18교육사업 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5·18교육 전국교사직무연수 및 청소년 연수 프로그램, 타지역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한다. 또 덴마크 교사와 학생을 초청해 5·18관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석희 5·18민주과장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관협의회 회의를 통해 최적의 교육프로그램 방안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이 5·18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명실상부한 5·18교육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8곳 운영 종료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주의 당부

광주지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8곳이 12월30일 검사를 끝으로 1439일만에 운영 종료한다.

광주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선별진료소 종료 등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지난 2020년 1월22일 시작해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8개소(보건소 5, 의료기관 3)는 30일 검사를 끝으로, 1439일만에 운영 종료한다.

또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 10병상도 12월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다만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는 현행 '경계'로 유지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게 되며,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이용했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았던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및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에 한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대상자인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의사소견에 따른 검사자는 PCR,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지역 노로바이러스 확산… 영유아 환자 71.4%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최근 4주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0~6세) 환자가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의 위생수칙과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매주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내원한 장관감염증 환자의 원인 병원체를 감시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비교적 날씨가 포근했던 11월 둘째주(45주)와 셋째주(46주)에는 검출되지 않았다가, 47주차 22.7%의 검출률을 시작으로 12월 둘째주(50주)에는 50%로 4주간 2.2배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18.2%)과 비교해도 약 2.8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약 71.4%(20건/28건)는 0~6세 영유아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연령대에서 크게 유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외부 환경에서도 사흘 정도 생존이 가능하며, 이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겪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면역 유지 기간이 짧아 재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어패류, 채소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며,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다 5일 이내 회복되나 어린이와 노약자는 탈수증상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경리 수인성질환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며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 손을 충분히 씻고 식재료는 섭씨 80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면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48시간까지는 등원, 등교, 출근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소방안전본부, 올해의 소방인 6명 선정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27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2023 광주소방을 빛낸 '올해의 소방인'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의 소방인'으로 황선주 소방경, 김명중·이업 소방위, 송해준·이봉주·최규서 소방장이 선정됐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가 27일 2023 광주소방을 빛낸 '올해의 소방인'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 제공

황선주 소방경, 김명중 소방위, 송해준 소방장(소방행정), 이업 소방위(화재진압), 이봉주 소방장(구조·구급), 최규서 소방장(교육·훈련)은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적극행정, 화재진압을 통한 시민의 생명 보호, 적극적인 민원 해결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올해의 소방인'으로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포상금 및 포상휴가, 광주시장 표창을 줬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2023년도 광주소방을 빛내준 6명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도시 광주를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소방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식품가공기계 사용 음식점 긴급 점검

광주시는 28일부터 6일간 식품가공기계 사용 음식점 23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민관 합동으로 긴급 점검한다.

음식점 내에서 사용하는 식품가공기계는 파쇄·절단·혼합해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로 협착·끼임 사고가 주로 발생한다.

광주시는 자치구, 민간전문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근로자 준수사항 확인 등 위험요인을 파악해 예방조치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율안전확인 신고기계사용여부, 비상정지장치 등 기계 안전관리, 안전작업 절차 준수 여부, 감전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이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연말연시 시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도시 광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